

# 광양시, 관광지방역 나선다

### 방역·관리요원 42명 모집...내달부터 주요 관광지 배치 운영 취약계층·관광 분야 경력자·실직자 등 참여 안전한 환경 조성

광양시는 코로나 시대 안전하고 건강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지 방역과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투입해 방문객들의 생활방역수칙 지도와 방역지원, 기타 안전여행을 위한 관광지 수용태세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100% 국비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 중 42명의 방역·관리요원을 모집 선발한 후 교육과정을 거쳐 배치 운영한다.

채용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이나 관광 유관분야 경력자(또는 관련학과

졸업자),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실직자(폐업자 또는 휴업자) 등이 우대된다.

방역관리요원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등 주요관광지 12개소에 배치돼 방역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안전지도와 관광지 주변 환경 정화, 광양관광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이 시행되면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하고 함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 휴직자·실직자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화엽 관광과장은 "수그러드는 듯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시 대표 관광지의 방역과 수용태세를 강

화해 시민과 방문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관광의 극심한 침체로 인한 관광업계 휴직자, 실직자를 방역·관리요원으로 우선 채용해 미력하나마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모집요강과 선발기준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서류 선발기준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주요 관광지 개방을 중단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양시, 청년 희망스쿨 교육생 모집

광양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청년 희망스쿨 학과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스쿨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가진 지역 청년이 학과 운영자가 되어 학과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5개 학과로 운영되며, 학과 운영자의 계획에 따라 8차시 이내로 수업이 진행된다. 학과 운영기간은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교육생 모집에 앞서 진행된 운영자 모집에는 9개 학과가 접수되었고, 지난 25일 선정심사를 거쳐 5개 학과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학과는 △오감만족 3D프린팅(3D프린팅) △도전! 영상 크리에이터(영상 제작) △국. 알. 못 이렇게 해볼까?(국악) △마른 마음에 흥 베풀(밴드합주) △당신의 일상을 그리다(미술)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고흥 덩벙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박차

### 85% 공정률...역사 문화체험 및교육위 장 활용

고흥군은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사적 제519호) 인근 두원면 운대리 112-1번지 일원에 청소년 수련시설 막바지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고흥 덩벙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8월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관리사무실 신축 및 잔여 토목작업이 진행 중

이다. 고흥 덩벙 청소년수련시설은 뒤로는 운암산이 있고, 앞으로는 운대리수지가 위치하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위치에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민, 청소년, 일반인의 역사·문화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남도·사도 품격 높일 '우리동네 미술' 작가팀 공모

### 여수시, 9월 4일까지...37명 이상으로 구성된 1팀 모집, 4억 원 지원



올 2월 말에 개통된 남도대교

여수시가 지역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장이 될 '우리동네 미술' 사업에 참여할 미술작가 1개팀을 모집한다.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여수시가 주관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에 맞는 미술 작품을 설치하거나 주민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

업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화정면 남도 및 사도 일원에 사업을 진행하며, 선정된 작가팀에 총 4억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미술인은 대표자, 작가, 행정지원인력을 포함해 37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고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9월 4일까지 문화예술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참여 작가 자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659-4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과 예술인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여수섬섬길로 거리가 한 층 가까워진 남도와 사도에 아름답고 품격있는 예술의 혼을 불어넣어 줄 지역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인터뷰심사(팀별 PT발표)를 진행한다.

사업이해도, 실행가능성, 기획력 및 예술성, 예산적정성, 지역미술인 참여도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 다음달 9일 최종 선정팀을 발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승 기자

## 순천시 '반복적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

### 반부패·청렴역량 및 업무 전문성 향상 추진



순천시는 최근 직원 청렴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복적 감사지적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감사지적 사례집은 순천시 자체감사에서 유사·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취약업

무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감사지적 사례집은 ▲총무, ▲주민자치, ▲예산, ▲회계, ▲복지, ▲민원, ▲건설공사, ▲민방위, ▲농업, ▲보건 분야로 분류해 근거법령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례와 함께 직원이 업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2019년 31회, 2020년 7월 기준 25회의 청렴호루라기 발령

사항을 함께 수록하였다. 청렴호루라기는 순천시가 외부기관의 감사지적 사례나 언론에 보도된 비위행위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고하는 대표적인 반부패·청렴역량 향상을 위한 시책이다.

순천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반복적 감사지적 사례집은 반부패·청렴역량을 높이고, 베이비붐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급격한 세대교체 시기에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내부계사관 '청렴감사특목'에 반부패·청렴시책을 공유하고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적극행정을 위한 민원응대 길라잡이' 등을 발간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